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남정호	직급	선임연구위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김주형	직급	전문연구원
	소속	해양연구본부	성명	이혜영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업무협의회)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발표)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출장목적 : 지속가능 연안해양 초국경협력 컨퍼런스 개최 및 관련 업무협의 ○ 관련사업 : 동서해 평화번영기반 구축사업(일반사업) (사업기간 : 2023.1.1. ~ 2023.12.31.)					
출장기간	2023. 9. 10. ~ 2023. 9. 15. (4박 6일)		출장지		벨파스트(영국 북아일랜드) 더블린(아일랜드)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9. 10(일)	부산(08:05) → 서울(09:10)		○ 항공 이동 (김주형, 이혜영)		KE 1410
		서울(10:55) → 런던(17:25) 런던(19:25) → 벨파스트(20:50)		○ 항공 이동		KE 907 BA 1426
	9. 11(월)	벨파스트		○ 지속가능 연안해양 초국경협력 컨퍼런스 개최		
	9. 12(화)	벨파스트 → Lough Agency → 벨파스트		○ QUB-KMI 업무협의		
				○ Loughs Agency 방문 및 업무협의		
	9. 13(수)	벨파스트		○ 트리니티칼리지 벨파스트 캠퍼스, Ulster University 업무협의		
		벨파스트 → 더블린		○ 렌트카 이동		
		더블린		○ 트리니티칼리지더블린대학 업무 협의		
	9. 14(목) 9. 15(금)	더블린(15:25) → 런던(16:50)		○ 항공 이동		BA 837
런던(19:35) → 서울(15:55)		KE 908				
	서울(16:40) → 부산(17:45)		○ 항공 이동 (김주형, 이혜영)		KE1415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당초 출장계획서에 기술한 컨퍼런스, 업무협의 등을 일정대로 이행 ○ 주요 성과 - 지속가능한 연안해양 보호 및 이용에 대한 초국경 협력 관련 제도,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전문가의 경험과 결과 공유 - 초국경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한-북아일랜드, 한-아일랜드 전문가 및 관계 기관 장래 협력 기반 마련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국내기관 네트워킹에서 관련 내용 공유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통일부 등 정부부처에게 공동컨퍼런스 내용 공유, 향후 국정과제 '그린데탕트 구현'에 반영 - QUB, Lough Agency, 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과 공동연구 및 협력체계 구축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참고자료(경비 세부내역)

- 1) 적용기준 : KMI 여비규정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중 나등급(영국), 나등급(아일랜드)
- 2) 국외출장 공무상 필요에 의해 로밍 신청(공무통화내역 사후 실비정산)
- 3) 여행자보험, 로밍이용 요금, 제수수료 등 : 실비정산
- 4) 현지 렌트(2일)
- 5) 현지 회의 개최
 - 회의일자: 9.11, 9.12(1회), 9.13(2회)

* 예산항목

- 동서해 평화번영기반 구축사업(일반사업)

6) 체재비

출장자	체재비				비고
	숙박비	일 비	식 비	소계	
남정호	상한액 내에서 실비정산	$(\$35 \times 6 \text{일}) - 35 = \$175$	$(\$78 \times 6 \text{일}) - 78 = \$390$	\$565	렌트2일
이혜영		$(\$30 \times 6 \text{일}) - 30) * 2 = 300$	$(\$78 \times 6 \text{일}) - 78 = \$390$	\$690	식비 3식 차감 (회의비 3회)
김주형		$(\$30 \times 6 \text{일}) - 30) * 2 = 300$	$(\$78 \times 6 \text{일}) - 78 = \$390$	\$690	좌석승급 (김주형,이혜영)
합계				1,945	

* 상급자 동행출장으로 선임연구위원급 식비 및 숙박비 적용 (김주형, 이혜영)

- 재정정보시스템 내 일비 및 식비 자동 환율 계산 미적용으로 원화 수기 기입
- * 남정호 - 일비: $\$175 = 237,000 \text{원}$ / 식비: $\$390 = 529,000 \text{원}$
- * 이혜영 - 일비: $\$300 = 407,000 \text{원}$ / 식비: $\$390 = 529,000 \text{원}$
- * 김주형 - 일비: $\$300 = 407,000 \text{원}$ / 식비: $\$390 = 529,000 \text{원}$
- 환율 : $1\$ = 1,358.05 \text{원}$ (출장시작일 9.10 최초고시 환율/9.10 일요일로 9.8 환율 적용)

다운로드 인쇄하기

기준일 : 2023년09월08일 | 고시회차 : 1회차 | 고시시간 : 08시23분41초

조회시각 : 2023년11월01일 16시07분36초

통화	현찰				송금		T/C 사실때	외화 수표 파실때	매매 기준율	환가 료율	미화 환산율
	사실 때		파실 때		보낼 때	받을 때					
	환율	Spread	환율	Spread							
<u>미국 USD</u>	1,358.05	1.75	1,311.35	1.75	1,347.70	1,321.70	0.00	1,319.04	1,334.70	7.17933	1.0000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지속가능 연안해양 초국경협력 컨퍼런스 개최 및 발표/ 9월 11일(월) 09:00~18:00
수행계획	○ 지속가능 연안해양 초국경 컨퍼런스 개최 (KMI/Queen's University Belfast 공동) 및 발표 - (좌장) 지속가능한 연안해양관리를 위한 도전: 한국사례 세션 - (발표) Two Korea's' Relation on Legally Shared Waters and Key Challenges(김주형) - (발표) Korea's Marine Spatial Planning and Future Challenges(남정호) - (발표) MPAs in Transboundary Marine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r(이혜영) ※ 컨퍼런스 개최계획 별첨
수행결과	□ 공동관리수역을 둘러싼 남북한 관계 및 MSP와 초국경 해양 영역에서의 이슈에 대해 발표 ○ (일시 및 장소) 9.11. 퀸즈유니버시티 벨파스트 ○ (참석자) 25명 ○ (발표) Transboundary sustainability of Korea backgrounds(남정호) -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며, 남북은 서로의 국가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 남북은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짐 - 한편, 1953년 남북 정전협정에서는 남북간 해양 휴전선을 다루지 않고 있어 1970년대 이후 해양 경계는 지속해서 쟁점으로 부상함 - 남북관계는 사회적·정치적 여건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으나, 남북은 각각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 - 해양환경에 대한 남북의 높은 관심을 기초로 그린데탕트 추진 가능성 모색 필요 ○ (발표) Inter-Korean Agreement on Legally Shared Waters and Key Challenges(김주형) - 한강하구의 범위: DMZ는 육상에서의 경계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2km씩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완충지대. 반면 한강하구에는 획정된 경계가 없으며, 한강하구 자체가 경계이자 완충지대의 역할 - 정전협정에 따르면 한강하구에서는 민간 선박의 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엔사의 승인이 있어야 함 - 이스라엘과 요르단, 키프러스와 북키프러스, 통일전 동서독 뤼벡만 어업문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 로크에이전시 운영 등 중첩되는 영역/해역에 대한 협력 사례 소개 - 남북간의 관계에는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의 영향도 크게 미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발표) MPAs in Transboundary Marine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r(이혜영)

- 한국은 해양보호구역, 경관보호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다양한 유형의 보호구역을 지정·관리 중이며, 북한은 람사르 습지 보호구역 2개소(라선, 문덕)를 지정 운영 중
- 한국의 갯벌(4개소)는 연속유산으로서 '21년 7월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당시 물새 서식지로서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갯벌 확대 지정을 조건으로 등재
- 한국은 세계자연유산 규모 확대, 북한의 습지 정책 확대 측면에서 상호 관심사가 동일하므로 향후 협력사업으로 발전 가능
- 특히, 세계자연유산은 등재 이후 관리 거버넌스 운영이 중요하므로 남북 상호간 소통 채널의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세션별 주요 내용

<세션-아일랜드 25년 초국경 해양경험 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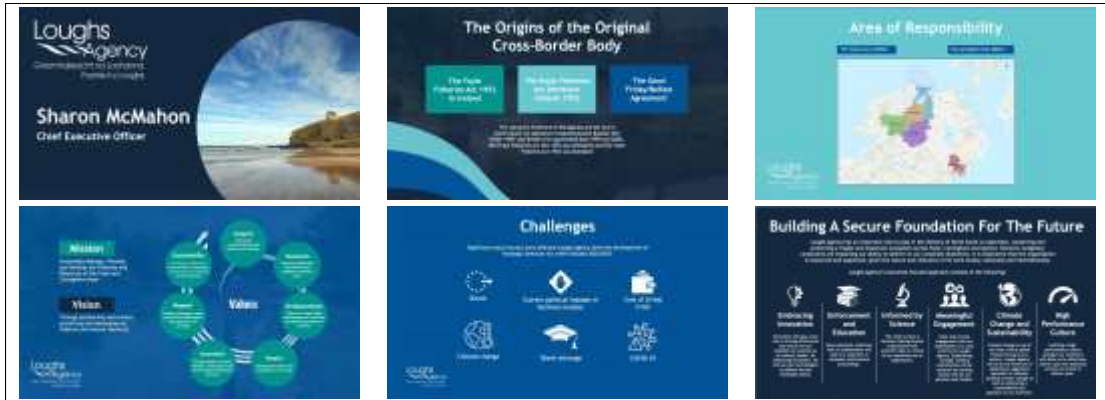
○ (발표) Sharon McMahon (Loughs Agency)

- 제목: Loughs Agency
- 로크 에이전시는 국제협정과 아일랜드 및 북아일랜드 국내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설립된 공동관리기구로서 명확한 설립·운영 근거를 가짐
- ※ The Foyle Fisheries Act 1952 in Ireland / The Foyle Fisheries Act (Northern Ireland) 1952, The Good Friday/Belfast Agreement
- 로크 에이전시가 관할하는 구역은 육상과 해양을 포함 총 4,500km² 상당이며, 공동수역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관리를 통한 자원 보전 및 혜택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최근 영국의 EU 탈퇴,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여건 변화, 전문인력 부족 등이 로크 에이전시 운영의 주요 문제로 부상



○ (발표) Hugh Edwards (DAERA)

- 제목 : Transboundary Marine Mangement on the Island of Ireland – an Ecosystem Approach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25년간 공동으로 해양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간 공동관리를 위한 제도를 다양하게 개발·운영중
- 로크 에이전시를 포함, 다양한 초국경 관리기구가 있으며, 공동관리를 근거 법률로서 OSPAR, ICES, EU Eel Directive, CBD 등
- 접경수역은 랍사르 습지 등 보호구역으로 관리되는 개별 공간들로 구성되어 물새 서식지가 분포하는 공간으로 향후 생태계접근법 적용을 통한 관리수단 개발 등을 검토 중



○ (발표) Matthew Service (AFBI)

- 제목: Transboundary Marine Management of Carlingford Lough
- Carlingford Lough는 아일랜드 동부 연안의 폭이 좁은 바다로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접경 해역으로서 특별보호지역(Special Protection Area)로 지정·관리 중
- 다양한 바닷새와 포유동물 서식지가 분포하며, 조개류 양식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수요도 높음
- 보호구역은 OSPAR협정, 북아일랜드 해양법, EU 해양전략체계규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양식 관리를 위한 법제도는 부재
- 동 접경지역은 보전·이용 수요가 혼재하는 곳으로 의사결정 체계의 구축이 관리의 핵심으로 작용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발표) Caitriona Nic Aonghusa (Marine Institute, ROI)

- 양국에서 동일하게 해양공간계획을 수립·이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서 공동 해양공간계획이 효력을 가질 수 있었음
- 이외에 공동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요 현안으로 양국의 데이터 구축 수준의 차이를 들 수 있음
- 또한 데이터 상호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

<세션-지속가능한 연안해양관리를 위한 도전: 한국사례>

○ (발표) 서한교(Trinity College Dublin (Belfast Campus) / 통일부)

- 제목: Challenges for Sustainable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Perspective from the Korean Peninsula
- 한강하구는 강화도 북측의 총 길이 70km, 면적 280km²의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수역으로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철새의 주요한 이동경로
- 정치적,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지만, 경제, 환경, 안보상의 이유로 자세한 조사가 요구됨. 양측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같이 지금까지 다수의 군사 분야 합의를 진행
- 양측은 한강하구의 합동 수로조사를 실시. 2018년 11월 5일~12월 9일 35일간 진행되었으며, 각 10명의 대표가 참가하여 한강하구를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 진행
- 2019년 한국은 북측에 수로조사의 결과를 반영한 지도를 전달했으며, 이후 추가적인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음
- 현재, 정부는 남북간 그린데탕트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통일부의 2023년 계획에도 그린데탕트 포함되어 있으며 대북제재의 범위가 아닌 비정치분야의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세션-해양공간계획과 먼해 현안>

○ (발표) Peter Coyle (Marine Renewables Industry Association)

- 제목: Lessons from Ireland Experience
- 아일랜드의 해양거버넌스는 영해 내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먼 바다의 자원 이용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간 해양경계를 획정
- 아일랜드는 가스 이용률이 높으며 향후 에너지 수요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일랜드 사례를 비취볼 때 해양 관리체계를 구축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
- 한편,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협의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발표) Ellen MacMahon (GOBE Consultants)

- 초국경 공동 해양공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 상호 간 관할권의 차이, 법적 차이로 인해 다양한 현안이 발생할 수 있음
- 초국경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지침이 부재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였으며, 재정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음
- 아일랜드/북아일랜드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환경 보호 이슈를 해양공간계획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 초국경 해양공간계획 과정은 상호 간 지식 및 정보 공유의 기회로서 의의를 가짐

○ (발표) Kofi Ansong (University of Liverpool)

- 제목: Barriers to Transboundary MSP
- 포메라니안 베이(Pomeranian Bay)는 독일과 폴란드 사이의 해역으로 HELCOM-VASAB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독일과 폴란드는 2021년에 각각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함
- 해양공간계획은 정치적 현안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독일과 폴란드 접경해역은 해양생태계 보호(natura 2000 구역)와 해운항만 활동 보호로 양국간 이해관계가 상이한 곳으로 갈등 발생
- 아일랜드 접경 해역 해양공간계획은 접경해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어 한계가 존재하며, 접경해역에 대한 관할권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 MSP 체계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투명성 강화, 미래 비전 구체화,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이 필요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발표) Jungho Nam (KMI)

- 제목: RO Korea's Marine Spatial Planning and Transboundary MSP issues
- 계획체제는 육상에서 연안과 공해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계획체제도 공간적으로 확대 중(연안통합관리 → 해양공간계획)
- 한국의 해양공간계획은 데이터 기반하여 공간별로 해양의 용도를 지정하는 구획(zoning)체계로서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 9개 유형의 공간으로 구분하여 제시
- 한국은 2021년 영해(11개 시도)와 EEZ(3개 권역)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함
- 해양환경의 보전은 남북의 주요 현안으로서 향후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공동 해양공간 계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남북의 관할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북한은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동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존재
- 또한, 접경해역의 환경·생태, 활동 등에 관한 데이터의 부재도 해양공간계획 추진의 제약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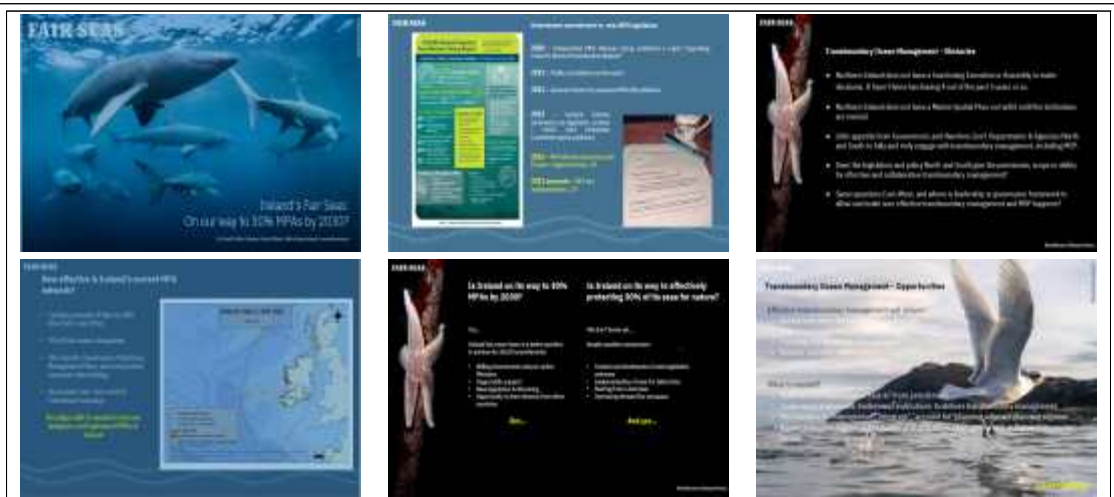


<세션-해양 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호>

○ (발표) Donal Griffin (Fair Seas): *Marine Protection in ROI*

- 제목: Ireland's Fair Seas: On our way to 30% MPAs by 2030?
- 현재 아일랜드 해역의 9%가 보호 해역으로 지정, 관련 법안은 하원 검토를 거치는 중이지만 MPA 지정과 이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2030년까지 MPA 설정을 30%까지 할 수는 있지만 효과적으로 해양 보호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움. MPA이행에 있어 긍정적인 상황이지만 새로운 법령의 규정과 제정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새로운 법 적용에 시간 걸림
- 초국경 해양 관리의 걸림돌로는 북아일랜드에 관련 내용을 다루고 결정을 내릴 정부기관이 4~5년째 운영되지 않으며, 해양공간계획이 없다는 점, 남북 아일랜드 모두 MSP 포함 초국경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부족 등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발표) 권동혁 (Trinity College Belfast, 통일부) *National Policy for Green Detente Promotion in Korea*

- 제목: Green Détente Policy of Korea -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 그린데탕트는 환경과 생태(Green)와 긴장완화(Détente)를 결합한 것으로 국정과제 94-4로 설정
- 남북한간의 비정치적, 비군사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특히 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의 신뢰구축을 통해 긴장 완화 및 평화로운 통일 달성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 상호협력과 북한 주민의 기본수요를 증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한 양측 모두의 대응 역량 제고. 이를 위해 재해 방지, 식량안보, 수자원 관리, 삼림 복구, 에너지 협력, 생태계 보호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세션-해양환경협력, 평화와 화해를 위한 촉매>

○ (발표) 김동진 (Trinity College Dublin)

- 제목: Peace Building Process and its implications for Marine Cooperation
-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전략은 정부 차원의 협상과 함께 대중이 접근 가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공간과 함께 다양한 활동 및 다양한 역할의 조정이 필요
- 동시대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비교연구의 목적은 모든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평화프로세스의 도전과제와 기회의 유사점과 차이를 파악하고 각 상황에 유용한 교훈을 도출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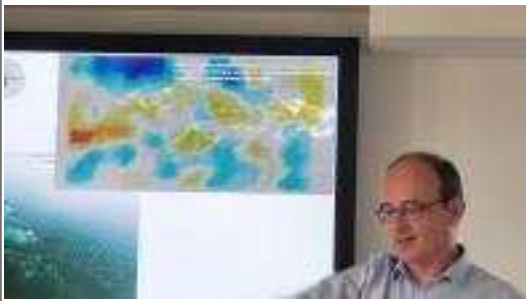
○ (발표) Anne-Marie O'Hagan (MaREI, UCC)

- 제목: Brexit and the Future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n the Island of Ireland
- MPA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EU해양전략프레임워크 지침, CBD, OSPAR 협약 등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 해역이 10%를 MPA로 설정할 것을 목표로 함
- 아일랜드는 2023년 1월 기준 2.1%, 현재는 8.3% MPA 설정
- 초국경 MPA와 관련한 내용은 최근 다소 논의되고 있지만, MPA 네트워크에 대한 관할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는 다소 불확실
- MPA와 관련한 연구/정치/규제 부문은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명백하지만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공식적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②	QUB-KMI 업무협의 / 9월 12일(화) 09:30~11:00
	수행계획	○ QUB-KMI 기관 협력관계 구축방향 논의 - QUB 관계자, KMI 출장자 등 10여명
	수행결과	□ 벨파스트 대학의 환경 관련 R&D 연구 결과 공유 및 기관간 협력관계 구축 방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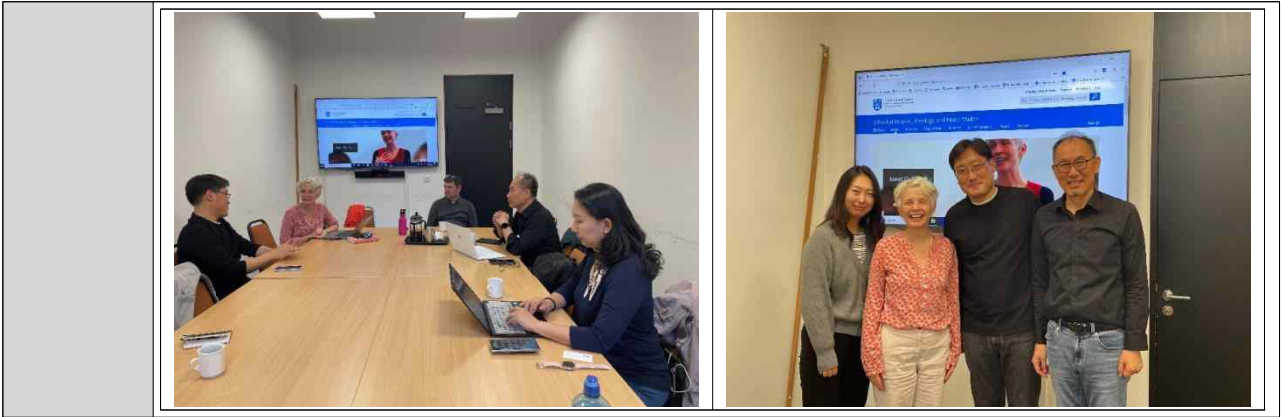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벨파스트 대학 주요 R&D 프로젝트 추진현황 - 벨파스트 대학은 해양 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주요 연구 프로젝트로 미세조류를 활용한 Wave Dampening, AI 선박 개발, 파력 발전(테스트베드 운영 중) 등 - 해양환경·생태 관련 연구로 드론 센싱을 활용한 조류 이동 경로 파악 연구 등 ○ 본원 연구 과제 중 한국의 서해 갯벌과 소도시의 생태계 보호 현황 및 프로젝트 소개    
업무③	Loughs Agency 방문 및 업무협의 / 9월 12일(화) 14:00~16:00
수행계획	○ Loughs Agency 초국경 협력의 성과 및 한계 협의 - Lough Agency 관계자 및 컨퍼런스 참석자 등 15명
수행결과	○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초국경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Loughs Agency 운영 전략 - 로크 에이전시는 협력의 확대·강화를 위해 과학적 증거 기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분야로 연어 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트래킹 기술 개발·적용이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연어 관리계획(안)을 수립함 - 연어 자원 관리계획에는 통합적 접근법, 위협요인 기반 접근법 등을 제시 ○ Loughs Agency 운영의 성과 및 한계 - 로크 에이전시의 성공적 운영은 명확한 법적 설립 근거, 국제협력을 통해 기관의 성과 확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기반함 - 로크 에이전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던 어족자원의 관리를 기초로 발전했으며, 지속가능한 어족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관광, 생태 분야로 관리기반을 확대 중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④	트리니티칼리지 벨파스트 캠퍼스, Ulster University 업무협의 / 9월 13일(수) 10:00~11:30
수행계획	○ 초국경협력에서 연구기관의 역할 - 벨파스트 캠퍼스, Ulster University, KMI 출장자 등 10여명
수행결과	○ 트리니티 칼리지 벨파스트 캠퍼스와 Ulster 대학 전문가들과 장래 초국경협력에 대한 연구 방향 등을 협의 ○ Ulster 대학에서 북아일랜드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MSP)의 수립 이후 정부체계 미작동으로 승인 불발 사례에도 불구하고, 정부체계 정상작동에 대비하여 연구기관은 지속적으로 연구수행 - Ulster대학의 공간분석에서 가용 자료의 내용과 접경해역에 대한 공간관리 방향은 정부체계 정상작동 후이나 가능 - 앞으로 정부체계 정상작동 시 아일랜드와 협의를 통한 접경해역 공간계획 수립 과정에 상호 방문, 협력 공유 ○ 벨파스트 캠퍼스는 평화학에 특화된 곳으로, 교류협력 이후 나타날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및 경험 교류 - 한반도에서 관계 개선 후에 교류협력 추진과정에서 상위 정책결정 단계가 아닌, 현장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협력
업무⑤	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대학 업무협의 / 9월 13일(수) 16:00~18:00
수행계획	○ 트리니티칼리지더블린대학-KMI 협력 방향 협의 - 더블린대학 종교·신학·평화학부 관계자, KMI 출장자 등 6명
수행결과	○ 평화학 연구 추진방향 - 트리니티칼리지 더블린에서는 종교학, 신학, 평화학 학부에서 평화학 연구를 추진 중 - 다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연구 차원에서 접근 필요 ○ 기관 협력방향 - 아일랜드와 한국은 평화학 연구 추진에 있어 사회적·역사적으로 유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 (cf. 1998 Peace Agreement) - 트리니티칼리지는 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 수요가 있으며 향후 KMI 협력분야로 발전 가능 - KMI 연구 분야인 해양환경에 관련해서, 향후 평화 및 젠더 관점의 협력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별첨 1. 영문 프로그램

Dates/Time	Themes and Participants
09:00 – 09:30	Registration & Coffee
09:30– 9:45	Welcome & Introduction to Workshop Themes Richard Collins & Heather Ritchie(QUB) Jungho Nam (KMI)
10:00 - 11:00	Opening Roundtable Discussion: “Reflecting on 25 years of Transboundary Marine Experiences on the Island of Ireland” <i>Chair: Linda McElduff (Ulster University)</i> Sharon McMahon, Loughs Agency (ROI/NI) Hugh Edwards, DAERA (NI) Matthew Service, AFBI (NI) Caitriona Nic Aonghusa, Marine Institute (ROI)
11:00 – 11:20	Refreshment with Coffee/Tea
11:20 – 12:20	Challenges for Sustainable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Perspectives from the Korean Peninsula (with comparative UK/International perspective) <i>Chair: Jungho Nam (KMI)</i> Juhyung Kim (KMI): “Two Korea’s Agreement on Legally Shared Waters and Key Challenges” Hankyo Seo(Trinity College Dublin (Belfast Campus) / Director of MoU of RO Korea): “Inter-Korean Dialogues on Oceans and Fisheries, and Challenges for the Peace-Building Process” Stephen Jay (University of Liverpool) “Experience in Transboundary Marine Spatial Planning in the European Atlantic Region”
12:20 - 13:00	Lunch
13:00 – 14:20	Marine Spatial Planning and Licensing Issues <i>Chair: Heather Ritchie (QUB)</i> Peter Coyle (Executive Chairman, Marine Renewables Industry Association) Ellen MacMahon (GoBe Consultants) Kofi Ansong (University of Liverpool) Jungho Nam (KMI): “Korea’s MSP experiences and discussion on transboundary MSP implementation”
14:20 -14:40	Coffee/Tea
14:40-16:00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Biodiversity <i>Chair: Anne Marie O’Hagan (MaREI, UCC)</i> Donal Griffin (Fair Seas) Jade Berman, (Northern Ireland Coastal Adviser, National Trust) Donghyuk Kwon (Trinity College Belfast / Director of MoU of RO Korea): “National policy for Green Détente Promotion in Korea and Implications for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Hyeyeong Lee (KMI): “MPAs in Transboundary Marine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Joint Establishment of Transboundary MPAs”
16:00 -16:20	Coffee/Tea
16:20 – 17:20	<i>Chair & Academic Commentary: Richard Collins (QUB)</i> Dong Jin Kim (Trinity College Dublin): “Peace Building Process and its implications for Marine Cooperation” Anne-Marie O’Hagan (MaREI, UCC), “Brexit and the Future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on the Island of Ireland”
17:20-17:30	Closing Remarks – Richard Collins, Heather Ritchie and Jungho Nam
17:30 -19:00	Wine Reception
19:30 – finish	Conference Dinner (James St https://www.jamesst.co.uk)

별첨 2. 주요 참석자 명단

Full name (including title)	Job title and organisation (for name badge)
Dr Heather Ritchie	Lecturer, Queen's University Belfast
Dr Linda McElduff	Lecturer in planning, Ulster University
Mrs. Katharina MacKay	Volunteer- Queen's University Belfast
Matthew Service	Programme Leader Marine Ecology
Jungho Nam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Maritime Institute
Ms. Lee, Hyeyeong	Senior Researcher, Korea Maritime Institute
Ms. Juhjung Kim	Senior Researcher, Korea Maritime Institute
Dong Jin Kim	ISE Senior Research Fellow, Trinity College Dublin
Mr. Hankyo Seo	Director. Ministry of Unification
Dr Kofi Ansong	University of Liverpool/Howell Marine Consulting
Stephen Jay	Reader, University of Liverpool
Dr Anne Marie O'Hagan	Senior Research Fellow, University College Cork
Dr. Donal Griffin	Marine Policy Officer, Fair Seas Ireland
Dr Jade Berman	Coastal Advisor - National Trust
Prof. David Rooney	Queen's University Belfast
Donghyuk Kwon(Mr.)	Director, Ministry of Unification (South Korea)
SHARON MCMAHON	Loughs Agency CEO
Caitriona Nic Aonghusa	Section Manager - Marine Planning and Marine Environment (Marine Institute)
Peter Coyle	Chairman, Marine Renewables Industry Association
Dr Sarah McLean	Head of Science Loughs Agency
Mr Hugh Edwards	DAERA Marine Planning
Mrs Ellen MacMahon	Principal Consultant - GoBe Consultants